

직업계고 학생들 양질의 일자리 부족...취업 대신 진학 선택



기능영재들의 땀방울 결실 맺으려면

<중> 기업이 직업계고 살려야

“평균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친구는 6~7명도 안 돼요.”(김명우·18·가명·광주)

직업계고는 산업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업계고 본래 기능이 퇴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가운데 취업자는 1만6588명에 불과했다. 반면 진학자는 3만216명으로, 전체 졸업자 중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으로 향했다.

광주·전남 직업계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 직업계고 졸업자 1912명 중 취업자는 447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실질 취업률’은 23.38%에 그쳤다. 반면 진학자는 1028명에

취업률 광주 23.38%·전남 21.95% 대졸이상 학력 선호 채용 기회 적어 어렵게 취업해도 대우·임금 등 차별 학과 구성·교육과정 개편 필요

달하며 53.77%의 진학률을 보였다. 전남은 졸업자 3335명 중 732명이 취업해 21.95% 실질 취업률을 보였고, 1742명의 졸업자들이 진학을 선택하며 52.23%의 진학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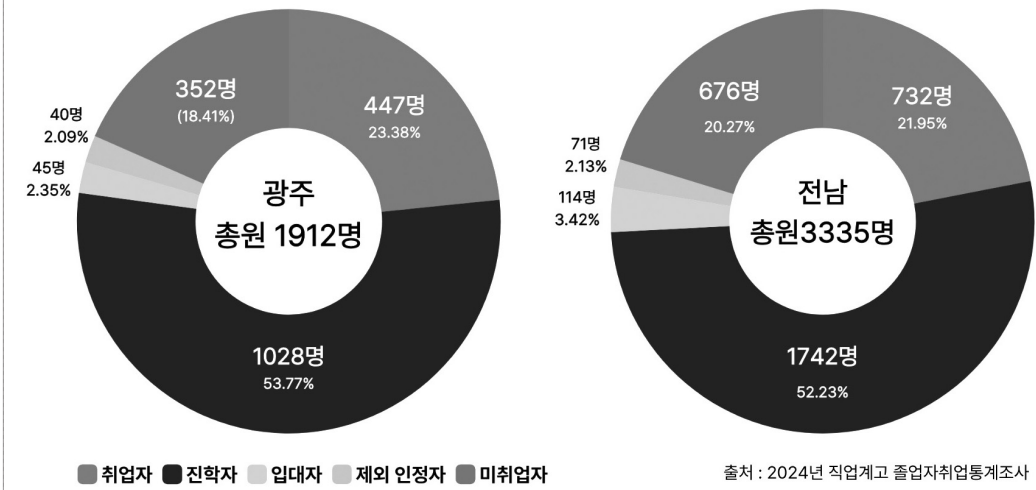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높은 진학률은 수년간 이어진 현상”이라며 “특성화고 특별 대입 전형이 시행된 점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교사도 고졸 학생을 채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을 앞둔 김군은 “본래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진학으로 마음을 바꿨다”며 “중견기업에 지원서를 냈으나 모두 서류에서 떨어졌고, 대부분 기업이 고졸을 뽑지 않는다. 친구 대부분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학생 전공에 따

■ 2024년 광주·전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자수



출처 :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취업통계조사

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선호하다 보니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채용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차별적인 대우도 학생들을 대학으로 내모는 요인으로 꼽혔다. 4년 전 직업계고를 졸업한 박민근(24·가명·광주)씨는 IT 관련 회사에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입사했지만, 현재 그는 ‘대학생’이다. 그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전공과 무

관한 4년제 대학 졸업생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고졸 신분으로는 커리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결국 낮은 진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명우씨도 “선배들 중에서도 졸업 직후 취업했다가 차별적인 대우와 임금 문제로 다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듣고 진학을 택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34세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시간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305만여원이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대졸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시간으로 고졸 근로자보다 14시간 더 적게 일했음에도, 월평균 임금은 382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장 교육과 산업 현장의 괴리도 진학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주영(18·가명·광주)군은 “선생님마다 (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임용 당시 선생님들이 배운 기술이 현재 시점에서는 오래돼, 현장 업무와 괴리가 있다”며 “결국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취업을 나간 선배들 중 ‘업무능력 부족’의 이유로 돌아오는 선배들도 종종 봤다”고 덧붙였다.

차성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성화고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고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성민 인턴기자 hasungmin14@naver.com

광주·전남 소아청소년과 의원, 서울 10%도 안돼

각각 9%·5% 불과...전문의도 수도권 쏠림 진료 접근성 불균형

광주·전남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서울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도 서울이 광주·전남의 6배·10배에 달해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표한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1차 의료기관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의 경우 광주 42곳, 전남 25곳으로 서울(459곳)의 9%와 5% 수준에 불과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7개 특·광역시 중 세종(27곳)·울산(33개소) 다음으로 50곳도 안되는 곳에 포함됐으며, 전남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694곳)를 포함한 수도권과 비교하면 훨씬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아청소년 1만명당 소아청소년 표식과목 의원 수(2023년 기준)를 비교하면 서울은 전국 평균(2.9곳) 보다 1곳 더 많은 3.9곳인데 비해, 광주와 전남은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1.8곳과 1.0곳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표식과목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개설 신고 때 진료과목(표식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등록·표시한 기관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 수는 751만2000여명이며, 이중 서울은 116만3000명, 광주 23만2000명, 전남 25만1000명이다.

전문의 수(2024년 2분기 기준)도 서울이 1510명으로 광주(238명)의 6배, 전남(149명)의 10배 이상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1691명)의 전문의 수가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어 쏠림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의 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2022년 기준)에 의하면 광주는 0.97명으로 전국 평균(0.80명) 보다 약간 많지만 서울(1.15명), 부산(1.01명), 대구(1.01명) 보다 적으면서 1명도 안되는 수준이다. 전남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경북(0.52명), 충남(0.56명)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료 기관과 전문의 수는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도간 격차가 큰 것은 소아청소년 전문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간 소아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학상, 기타가와 스스무·리처드 롭슨·오마르 M. 야기

물리학상, 존 클라크·미셸 데보레·존 마티니스

생리의학상, 메리 E. 브링코·프레드 램즈델·사카구치 시몬

노벨위원회 수상자 발표

10월 둘째 주 노벨상 시즌을 맞아 각 부문별 수상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노벨상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화학상은 지난 8일(현지시간) ‘금속·유기 골격체’를 개발한 일본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 호주 리처드 롭슨 멜버른대 교수, 미국 오마르 M. 야기 UC버클리대 교수 등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유기 골격체’는 금속 이온을 유기 분자로 연결해 만든 골격 구조로, 내부에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 다른 분자들이 드나들거나 흡착될 수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새로운 규모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한 존 클라크, 미셸 데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을 공동 수상자로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에 기

여한 이들 3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원자 수준의 미시 규모에서 적용되는 양자역학의 효과가 미시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기회로 등 거시적 규모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연구했다.

이에 앞서 6일(현지시간) 발표된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반응 관련 발견으로 인체 면역 관련 연구에 기여한 미국 생명과학자 메리 E. 브링코, 프레드 램즈델, 일본 사카구치 시몬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 연구자들은 면역 세포가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면역체계의 경비병 ‘조절 T 세포’의 존재를 밝혀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본은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수상한 데 이어 화학상도 거머쥐며 올해 노벨상 2관왕에 올랐다.

수상자 상금은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이며, 3명의 공동 수상자인 경우 똑같이 나눠서 3분의 1씩 받게 된다.

한편 오는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공표를 끝으로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가려지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이-하마스, 1단계 가자휴전 합의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밝혔다.

‘합의된 선’은 가자지구내에서의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9일 하마스와의 1단계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정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합의 이행 72시간 내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에 합의한 직후인 9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에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를 포함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담양 천주교공원묘원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9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하에 기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은 부인과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묘의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평암리 산27(천주교공원묘원)
2. 분묘가수: 30기
3. 묘지번호(묘지): 07-238(묘지) 12-078(묘지) 12-105(묘지) 12-108(묘지) 12-170(묘지) 12-195(묘지) 12-238(묘지) 13-035(묘지) 13-036(묘지) 13-059(묘지) 13-067(묘지) 13-081(묘지) 13-088(묘지) 13-098(묘지) 14-078(묘지) 14-022(묘지) 14-111(묘지) 14-123(묘지) 14-153(묘지) 14-155(묘지) 14-161(묘지) 14-171(묘지) 15-035(묘지) 15-202(묘지) 13-107(묘지) 14-079(묘지) 1007A-0906(묘지) 1007-4129(묘지) 11-084(묘지) 104-1840(묘지)
4. 개장방법: 시공기간 종료
5. 개장방법: 공묘기간 종료후 관계법률에 따라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공묘자 임의개장, 개장후 화장 불인
6. 안치대상: 전남 담양군 월산면 평암리 512(천주교공원묘원)
7. 안치기간: 안치 후 5월(시행령 제24조)
8. 공고기간: 최초 공고발령부터 3개월
9. 공고인: 광주·전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위원장
10. 신고처: 천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담당(062-227-1210)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23, 천주교공원묘원)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광주·전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5년 9월 22일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9월 22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라포레에클라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87번길 20, 203호(쌍암동, 상상포스트)

청산인 이순애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금,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